

# 소수자 인권을 되짚다



리운드 테이블에 출연하는 성수연 배우(왼쪽부터), 오재형 감독, 허영균 대표.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장애인권 문화제', 소수자 인권을 필름에 담은 '장애인권 영화제', 모두를 위한 예술을 논의하는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배리어프리' 등 소수자 인권을 되짚는 행사들이 펼쳐진다.

먼저 고행자나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장벽을 허물자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무장애)'에 주목, 무장애 영화를 상영하고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독립영화관(관장한재섭·영화관)은 '새로운 예술 장르로서 배리어프리'를 오는 29일 영화관에서 연다.

총 다섯 개 배리어프리 단편선을 선보이는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회는 오후 2시 40분부터, 하나의 예술 장르로서 무장애 영화를 모색하는 좌담회 '라운드 테이블'은 같은 날 오후 7시(별도 예매 절차 없이 참석)에 진행된다.

상영회에서는 조한나 감독의 '퀸의 뜨개질'을 비롯해 '유령극', '아웃!', '오늘의 영화' 등을 볼 수 있다.

오재형 감독이 배리어 프리 방식으로 제작한 '피아노 프리즘'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상영한다. 오 감독의 음성으로 화면 해설을 제공해 시각장애인들이 관람 장벽을 넘어서도록 했다. (일반석 1만원, 장애인 동반 1인 6000원)

세명 연사가 출연하는 '라운드 테이블'도 새로운

광주독립영화관, 29일 '배리어프리' 라운드테이블 진행

11월 2일 '장애인권 문화제' 라인댄스·전자바이올린 등 공연

11월 6일 '장애인 인권영화제', '관객과의 대화' 등 5편 상영

예술장르로서 배리어프리 형식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발제를 맡은 성수연 배우는 제60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극단 크리에이티브 '섬 이야기'로 제2회 박효선 연극상을 수상했다. '양립동 소녀'와 '피아노 프리즘'을 연출한 오재형 감독도 낯은 형식으로서 배리어프리 사례를 돌아본다.

공연예술출판사 대표이자 '온도들'의 디렉터, 작가, 퍼포머로 활동하는 허영균 대표는 사회자로 자

리할 예정이다.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관하는 '장애인권 문화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11월 2일 오후 1시부터 첨단쌍암공원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색소폰, 라인댄스, 전자바이올린 등 공연 레퍼토리로 채워질 예정이다.

첨단겨자씨 문화센터는 난타 퍼포먼스, 라인댄스를 선보이며 KCY 색소폰 팀의 관악 앙상블을 들려준다. 이어 강명진의 전자바이올린 공연과 유은

기, 임미아의 노래, 전자음악단 가락의 선율이 야외 무대를 수놓는다.

아울러 그림톡 만들기, 키링 만들기, 체험부스 등 간단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여에 자립지원팀장은 "지역 장애인 및 주민들과 '문화'를 매개로 장애인 자립생활과 관련한 제도, 정책, 지역사회 자원 등을 공유하는 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지역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행사들이 장애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제6회 장애인 인권영화제'를 11월 6일 오후 2시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연다.

'소희로부터', '형제복지원으로 본 한국 수용시설의 역사', '원대'를 비롯해 '주교받은 () : 노력', '관객과의 대화' 등 소수자 인권을 다룬 다섯 편 작



조한나 작 '퀸의 뜨개질' 스틸컷.



다큐 '형제복지원으로 본 한국 수용시설의 역사'

## '나무가 되고 싶다'



“시적 산문 쓰기” 백전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전남문화재단, 19일 아트박람회장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심사평에서 "역사적 트라우마를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그려냈다"고 평했다. 한강 작가처럼 초·중·고등학생 예비 작가들이 시적인 산문을 써보는 백일장이 열린다.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재단)이 '시적 산문 쓰기' 백전을 오는 19일 오전 10시 화순 하니

움문화스포츠센터 전남아트박람회 현장에서 연다. '나무가 되고 싶다'라는 시제로 펼쳐지는 이번 백전은 시, 산문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초등부는 원고지 5장 이내, 중고등부는 10장 이내 분량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의 경우 운율을 중심으로, 산문의 경우 문장의 정확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심사 및 시상을 바로 진행하며 장원상(재단 대표이사상) 2명, 차상(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상) 2명을 비롯해 차하(한국예총 전남회장상) 4명 등 총 8명을 선발한다. 시상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및 한강 도서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접수번호 추첨을 통해서도 한강 작가의 도서를 랜덤 증정한다.

재단 김은영 대표이사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영감이 문학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백전에 참가하는 예비 작가들이 문학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독서 문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람회 ART061 행사장 내 재단 홍보부스(센터 입구)에서 오전 10시부터 현장 접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가을 나무와 푸른 별의 순례'

한희원 개인전, 27일까지 서울 갤러리 단정

시나브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 가을은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이다. 나뭇잎은 단풍이 들고 하나 둘씩 떨어진다. 가을 밤 하늘은 유독 깊고 신비스럽다. 하늘은 따스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잠시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푸근해진다.

한희원 작가가 나무와 별 등 모티프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를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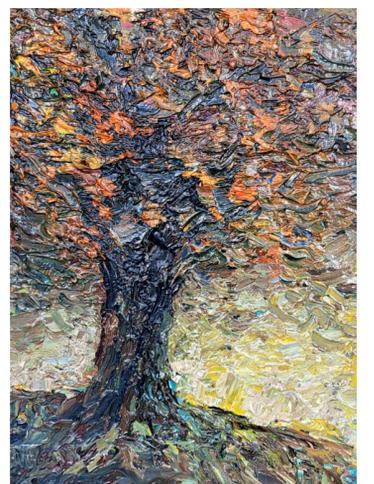
오는 27일까지 서울 갤러리 단정에서 진행중인 전시 주제는 '가을 나무와 푸른 별의 순례'. 가을 나무, 푸른 별, 순례라는 어휘가 환기하는 것은 서정성이다. 35개 작품은 시적이면서도 잔잔한 울림을 준다.

한 작가는 "그동안 한전, 광주시립미술관, 광주과기원 등에서 큰 전시 위주로 작품을 선보였는데 조금 지쳐 있었다. 그러던 차에 단정갤러리에서 서정적이고 위안을 줄 수 있는 전시를 해보자고 했다"며 "이번에는 나무와 별 두 소재를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니 시적인 분위기가 나는 것 같다"고 했다.

전시장에는 한 작가가 지은 시도 있다. 문학청년의 감성이 묻어나는 시와 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플라타너스 사이로/ 별 몇 개/ 반짝입니다/ 가을바람에/ 나무는 속없이 흔들입니다/ 아는 이런 가을이 괜히 밍습니다/ 플라타너스 아래로 떨어진다/ 별 몇 개 주위/ 집으로 돌아옵니다..." ('주머니에 든 별 몇 개' 중에서)

작품 가운데 '티벳의 별', '가을나무'는 동심과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한 작가에 따르면 티벳을



'가을나무'

동서로 횡단한 적이 있는데 당시 사막에서 봤던 별들은 맑은 빛으로 뇌리에 남아 있다. 파란색과 푸른색의 어둠함과 신비로움은 마치 그림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한 작가는 "대개 요즘 전시가 화려하고 현대적인 그림들 위주로 진행되는 게 보편적이지만, 이번에는 고전적인 그림들을 그리고 싶었다"며 "아날로그 정서를 환기할 수 있는 그림과 소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이 잃어버린 감성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옛 자료 통해 새로운 문화의 꽃 피운다'

한국학호남진흥원, 18일 기증·기탁자의 날 행사

올해 7년 차를 맞은 한국학호남진흥원(원장 홍영기)은 호남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진흥하는 허브기관 위상을 강화해 가고 있다. 특히 호남문헌국역서, 기증·기탁자료 해제집, 목록집, 영인본 등 발간이 100여 권에 이른다.

연초에는 기정진 종가의 소장자료 3000점이 기탁됐는데 홍영기 제3대 원장 취임 직후 이루어져 그 의미가 남달랐다.

올해에만 120여개 문중 등에서 8만2986점이 기증 기탁됐다. '매천 황현 초상화' 등 보물 3점 외에

도 국가등록문화유산, 전라남도 유형문화유산 등 가치 있는 자료들이 눈길을 끈다.

한국학호남진흥원이 제10회 기증·기탁자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어 눈길을 끈다.

18일 오전 10시 30분 라마다플라자 총장 12층 로즈마리홀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옛 자료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홍영기 원장은 "이번 행사는 소중한 자료를 한국학호남진흥원에 기증·기탁해 주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진흥원은 다양한 자료를 토

대로 앞으로도 보관과 연구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화를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먼저 식전행사로 조사수집 영상을 상영하고, 국악공연이 펼쳐진다. 본행사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국학자료 수집 경과보고, 영상시청, 간행물 100권 출간 성과 보고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환영사 및 직원소개, 주요 내빈 축사, 기증·기탁자 대표의 인사말이 있을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과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끝으로 행사가 막을 내린다.

한국학호남진흥원 조일형 박사는 "무엇보다 진흥원은 우리 옛 자료의 수집, 보관, 연구, 번역, 콘텐츠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옛 자료를 통해 새로운 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라고 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